

국립공원 내 '특별보호구역' 확대된다

변산반도 1곳 신규지정...기존 다도해 해상 5곳은 면적 확대

2007년 도입 총 204곳 면적 330.6km²...출입시 과태료 50만원

국립공원 내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는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이 모두 6곳에서 확대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16일부터 변산반도 1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새로이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다도해해상 5곳의 특별보호구역 면적은 확대키로 했다. 신규 지정 면적을 포함한 이들 구역은 2038년까지 관리한다. 이번에 신규·확대 지정된 구역 6곳은 총면적 5.7km²로, ▲ 변산반도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대

추귀고동 및 흰발농게 서식지) ▲ 다도해해상 5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해송 및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 등이다. 공단은 기후변화를 비롯해 국립공원 해양생태계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면서 특별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 도입됐다.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총 204곳, 면적 330.6km²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 중이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법 위반이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 설 명절 특별교통대책 추진

특별교통대책 추진

광주시는 24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 광주나들이 주간으로 정하고 시내버스 증차와 지하철 연장 운행 등 귀성·성묘객을 위한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한다. 설 연휴 4일 동안 귀성·성묘객이 집중되는 상무지구~광주종합버스터미널~국립5·18민주묘지 방향 '518번' 시내버스를 일일 60회에서 88회로 28회 증회 운행한다.

효령노인복지타운~월남동을 운행하는 '지원15번' 시내버스 노선을 일부 변경해 영락공원을 경유하도록 한다.

효령노인복지타운이 종점인 '용전86번' 시내버스는 영락공원까지 연장 운행하는 등 대중교통을 확대 운영해 성묘객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성묘객이 몰리는 국·시립묘지와 주변도로에는 시·구 공무원, 경찰, 모범운전자 등 80여 명이 교통정리와 주차지도를 한다.

광천고속버스터미널, 광주송정역, 말바우시장 등 교통혼잡 지역에도 공무원·경찰·모범운전자 등 400여명이 교통정리와 불법주차 계도활동을 한다.

지하철도 연휴 전날인 23일 자정 영업종료 후 소태항과 평동 방향에서 각 1회씩(총 2회) 0시45분까지 연장 운행한다.



전남 노사민정, 노사협력 우수기업인증패 전수

남도에너지(주) 방문해 인증패 전달하고 격려

노사협력 및 건강한일터 조성기여 공로 인정

전남 노사민정협의회와 전남 노사갈등조정해결 실무위원회(위원장 신광교)는 14일 남도에너지(주)에 2019년 건강한 일터 노사협력 우수기업 인증패 전수식을 가졌다. 남도에너지(주) (나주시 불항면 불항농공단지 소재)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전수식에는 신광교 전남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 위원장, 설인철 전남경영자총

협회 본부장, 최산순 한국노총 전남본부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남도에너지(대표이사 전희철)는 비금속류 원료재산업 17년(2004년 회사 설립)차 회사운영을 하면서 인화중심의 노무관리 산업안전 보건시설 완비, 노·사간 갈등해소 중점노력, 사원 복리 증진 강화 등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희철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근로자들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근로자들의 사색 및 주거 안정에 힘쓰며 노·사간의 공동이익을 위해 신뢰를 구축하고 또한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는 장시간 근로개선과 작업환경개선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전남이 선진적 노사문화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거듭나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행복한 전남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신봉우 기자

'무등산 주상절리 아트메달' 출시

조폐공사, 천연기념물 시리즈 마지막 작품

한국조폐공사가 프리미엄급 고품위 아트 메달인 '무등산 주상절리'를 선보인다. 천연기념물 시리즈 마지막 6번째 작품인 '무등산 주상절리 메달'은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466호인 무등산 주상절리의 진귀한 모습을 고심도(高深度)의 기술로 재현했다.

은메달(중량 500g, 순도 99.9%, 직경 80mm)과 동메달(390g, 80mm) 두 종류로 은메달 30개, 동메달 150개 한정 제작된다. 메달 측면에 일련번호를 각인해 소장가치도 높였다.

판매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은 개당 은메달 99만9000원, 동메달 15만 5000원이다. 15일 오전 10시부터 조폐공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아트 메달은 일반 메달보다 예술성과 임체감을 높인 반면 제작량(판매량)은 최소화해 수집가치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인기가 높다.

조폐공사는 특수압인기술을 활용해 2017년부터 지금까지 '참매·매사냥', '흑우·흑돼지', '장수하늘소', '수달', '쌍향수' 등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을 소재로 한 메달을 선보였으며, 모두 판매 당일 매진된 바 있다. 이번 '무등산 주상절리'로 시리즈는 완결된다.

광주 무등산 정상 부근에 위치한 '무등산 주상절리대'는 약 8500만년전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주상절리가 마치 거대한 병풍을 둘러쳐 놓은 것처럼 펼쳐져 있으며, '입석대'와 '서석대'가 대표적이다.

조폐공사 유창수 압인사업팀장은 "기술력과 예술성을 결합해 고품위 작품을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소장가치가 높은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문 열고 난방영업 안돼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집중 단속 예정

광주시는 20일부터 23일까지 상가나 매장, 건물 등에서 문을 열고 난방 영업을 할 경우 집중 단속한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문 열고 난방 영업' 행위를 금지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20일부터 4일 간 시행한다.

시는 이 기간 자치구, 한국에너지공단광주전남지역본부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인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문 열고 영업을 하는 업소는 최초 경고 조치 후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기간 외에도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계도할 예정이다.

오동교 시 에지산업과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에너지절약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견디기 쉬울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